논어 5편 공야장 1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臧文仲居蔡，山節藻棁。何如其知也？」

독음 · 자왈 장문중거채 산절조절 하여기지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장문중이 큰 거북을 보관하는 곳에 과한 장식을 한 것을 두고 공자는 그 지혜를 의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臧 착할 장 장 / 文 무늬 문 문

仲 버금 중 중 / 居 살 거 거 / 蔡 거북 채 채 / 山 뫼 산 산

節 마디 절 절 / 藻 조류 조 조 / 棁 동자기둥 절 / 何 어찌 하 하

如 같을 여 여 / 其 그 기 / 知 알 지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